



11월 3일 부산 흥법사에서 열린 '미주불교와 한국포교에 대한 특특 콘서트'에서 미국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이 현지 포교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5백여명의 참석자가 자리해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콘서트 진행자로 나섰다.

# 12년 美 포교 생생체험... 'Concert' 로 토크 쏟아내

## 흥법사 초청, 美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 토크 콘서트

기립 박수와 환호가 멈추질 않았다. 흥법사 대광명전을 가득 채운 참가자 5백여 명은 저녁 9시가 넘도록 한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온 스님의 말에 귀를 집중하고 있었다. 8시부터 토크 콘서트가 이뤄진 법당은 감탄과 환희로 가득했다.

11월 3일 '미주불교와 한국포교에 대한 특특(Talk talk) 콘서트'가 개최된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미국 LA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을 초청, 미주 불교의 현황과 포교 활동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포교도량으로는 미국 내 유일한 사찰인 정혜사는 미서부를 대표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젊은 신도 비율도 높다. 최근에는 신도수가 많아져 중창 불사를 할 정도로 입지가 커졌다.

특특 콘서트는 흥법사 개산 11주년과 11월 다라니 3일 기도 회향을 기념해 준비된 특별행사로 심산 스님이 진행자로 나섰다.

### 1백개vs4천개...기 펴지 못하는 한국불교

12년 전 정혜사에서 초청법회를 한 것이 계기가 돼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 석타 스님. 유학을 위해 잠시 들른 미국에서 주지를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신도들의 간곡한 부탁을 내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포들을 대상으로 전법을 펼치고 있다.

"미국 불교는 인종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민 온 아시아 민족들이 고국 불교를 이곳에 다 심어놓으니 까요. 대만, 베트남, 티베트, 일본 할 것 없이 다들 포

교에 열성적이지만 미국내 한국불교는 50년 역사를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조직이 미미하고 사제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한국 사찰은 1백개여개가 있지만 교회는 4천개가 넘어요. 한인 교회 신도들이 굉장히 조직력이 강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자들이 어깨를 펴고 살지 못해요. 식당에 조그만 불화 하나를 걸어놔도 다음부터 교인들이 오지를 않을 정도니까요. 반면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단주를 끼고 다녀도 별다른 차별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석타 스님의 말을 빌면 신도들의 고통화 역시 문제라고 했다. 이민 1세대들의 깊은 신심이 2세, 3세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탓에 조부 장례식에 스님 대신 목사나 신부가 기도를 집전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던 심산 스님은 크게 공감하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흥법사의 경우 10년 전만해도 어린이 법회에 자리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40명이 모이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석타 스님은 "자연히 청소년 포교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 한국문화 알리며 청소년 포교

"방학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법회는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들이 고려해 영어로 진행하지만 점차 한국어에 익숙해지면 한글 예불을 따라서 하도록 유도중입니다.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어 교

실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몇 년 하다보니 점차 입소문을 타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람이 많아져 법당이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정혜사는 대지 700평에 1백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법당과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였거든요."

마침 근처에 3천명 규모의 교회가 매물로 나왔다. 그러나 이곳을 눈여겨봤던 곳이 또 한 곳 있었으니 바로 인근 한인교회였다. 포교롭게도 입찰 경쟁을

한인교회신자 강한 조직력에 기놀려 고전 불교고령화 주목... 청소년 전법에 진력 방학마다 청소년 대상 템플스테이 '호응' 정혜사, 미국내 유일한 청소년 포교도량 성장



역경을 뚫고 전법에 매진했던 석타 스님의 이야기에 청중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별인골에 부지는 정혜사 몫이 됐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석타 스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 나라에 절을 만든다"고 한인교회 신도들이 정혜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며 그간의 우여곡절을 털어놓았다. 지금 정혜사는 교회의 십자가를 거둬낸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심산 스님은 "정혜사는 한국불교의 미국 진출을 상징하는 도량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석타 스님의 노고에 감탄했고 청중들 역시 박수로 응수했다.

### 기도 통해 원력 성취할 수 있어

고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석타 스님은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강 악화로 2차례 심장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겨우 미국 최고 심장외과 불리는 한국외사를 만나 3번째 수술을 받은 후 쾌차할 수 있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 정혜사 주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절을 맡고 나서도 꾸준히 부처님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정혜사가 청소년 도량으로 거듭나면서 불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도 덕분입니다."

석타 스님은 "정혜사 범우들도 함께 기도해줘서 제가 나온 것 같다. 지금은 도반들이 저를 만나면 얼굴만 좋다고 한다"며 "정혜사가 기도로 힘을 얻은 만큼 기도에는 원력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불자 여러분들이 믿으면 한다"고 그 가파를 거듭 강조했다.

스님의 생생한 미국 포교담이 끝나자 대광명전에 앉아 있던 청중들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건강이 상에도 포교에 헌신적으로 임해온 스님의 노력에 보

내는 환호였다.

법회를 마칠 무렵 한 참가자가 "우리 딸이 LA에 산다. 꼭 정혜사를 찾아가 공부하러 권하고 싶어서 스님의 주소를 받으러 가는 길"이라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스님을 찾아 뛰어갔다.

또 다른 참석자 이경미(46)씨는 "기독교도가 많은 미국에서 포교를 하시는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스님의 원력에 감탄했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느꼈다. 나도 원력을 세워 기도해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지영(45)씨 역시 "국내에서도 하기 힘든 청소년 포교를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하시는 게 감동이었다. 현지 아이들에게 불교를 포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공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산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석타 스님의 원력과 삶을 보면서 기도를 한 것 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석타 스님을 통해 간절함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흥법사와 정혜사는 청소년 교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석타 스님은 정혜사 청소년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흥법사와 함께 준비 중이다. 가 정형편상 한국을 한번도 방문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홈스테이를 통한 한국 문화와 불교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흥법사에서 영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흥법사 역시 지난 두 차례 정혜사 방문에 이어 2016년 정혜사를 다시 찾는다. 조만간 청소년 미국문화탐방대 모집을 시작해 언어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부산 흥법사=하성미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http://www.njsdfx.co.kr)

##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과	5년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li> <li>·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li> <li>· 입학신청서 1부</li> <li>· 여권용사진 10매</li> </ul>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2. 학교소개**

- ▶ 세계집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원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5. 문의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2014년도 12월 10일까지  
수시전형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한국 총장 헤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